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우리 하늘문교회 창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말씀은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장 이신 김세광 교수님이 오셔서 전하십니다.
3.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정책회의' 모임으로 인해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지난 주일 향존직 일꾼을 세우는 신임투표를 가졌습니다. 추천 받은 두 분의 안수집사님과 다섯 분의 권사님 모두가 신임을 받으셨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수집사: 신동기, 오승현 ■ 안수권사: 김경미, 신경미, 오효근, 이영선, 최윤정
5. 미리 고지한 것처럼 협동장로로 신택식 장로님을, 협동 안수집사로 오진석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6. 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태신자로 품고서 기도했던 이들과 함께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전택식 목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7. 다음 주일 낮예배 기도담당은 김윤식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이영선 집사님입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4일
예배기도(오전)	유중열 집사	김윤식 집사	권용기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오효근 집사	이영선 집사	김경미 집사	성탄축하예배
주일식사담당	김민자 집사 최순애 집사 김화현 집사	김경미 집사 이승미 집사 박진 집사	황희용 권사 이영선 집사	김금옥 권사 박선경 집사 이정현 집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12/2)	주사랑목장(12/9)	에덴목장(12/16)	갈렘목장(12/23)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12월 둘째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116번(구주강림) 다같이
*경배찬송	29장(통 29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90장(통 98장) 다같이
대표기도	유중렬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눅 24:13-16, 30~35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김세광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김세광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회의 모임으로 인해 쉽니다.

‘정책회의’로 모입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6:1-3 '그 후에 예수께서'(3)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마 6:5-8 '과녁을 향한 기도'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58:1-11 '주여, 나를 도우소서'(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언젠가는’

겨울 낮은 짧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 교회는 더 짧게 느껴진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면 어느새 어둑해진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주섬주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서 밤운동을 나간다. 지금은 추운 날씨 탓에 패딩 점퍼는 필수다. 휴대폰이 충전돼 있는지 확인하고, 바닥 폭신한 운동화에 발을 디밀어 넣는다. 가끔은 우리 교회 지킴이 하늘이를 데리고 나갈 때도 있지만, 성가실 때면 그냥 혼자 갈 때가 더 많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오가며 마주치는 이들이 건네 오는 인사에 화답하기도 한다. 그렇게 밤운동은 대부분 고즈넉하지만, 이처럼 뜻하지 않게 부산할 때도 가끔 있다.

예전부터 밤운동을 좋아한 것은 아니다. 이곳 구암리로 교회를 이전해 오면서부터 무료함을 달래려고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고, 가끔씩 해왔던 터라 그만 둘 만도 한데 언제부턴가 일상 속에 비집고 들어왔다. 향긋한 풀내음 불어오는 봄의 운치도, 요란한 풀벌레 소리 난무하는 한여름의 익숙함도, 빗바래져 떨어지는 나뭇잎들이 춤을 추는 가을 낭만도 낮보다는 밤이 제격이다. 그런 때려의 경험들이 자꾸 밖으로 불러낸 것 같다. 운동 삼아 밤길을 걷다 보면 삶이 조금 더 넓고 깊게 보인다. 낮에 얽히고 꼬여 심란했던 심사가 밤의 길을 걸으면 가뭇없이 풀린다.

이도 한겨울이 닥치면 끝이다. 차가운 삭풍을 견디며 공공 얼어붙은 눈길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밤운동은 딱 여기까지다. 더 이상 밤운동을 허락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인생이란 어쩌나 짧은지, 바지런히 걷고 즐겨도 모자란다고 말해주는 듯하다. 시간의 흐름은 인생의 본질을 밝혀 준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날이 이를 것이기에. 밤운동을 온전히 누리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날이 이르기 전, 한번이라도 더 진지한 밤운동을 허한다. 밤이 이토록 짧고 아름답다고 일깨우니, 걷지 않을 재간이 없지 않은가.

Written by 허영진